

C1007 골드펀드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골드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사는 이스트스트프링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골드펀드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4266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20.04.01
운용기간	2021.07.01 ~ 2021.09.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및 선물 등에 투자 자산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여 지수 추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외 투자 자산은 골드와 귀금속 채굴 및 가공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과 해외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골드펀드	자산 총액 (A)	2,825	3,249	15.00
	부채 총액 (B)	1	196	14707.21
	순자산총액 (C=A-B)	2,824	3,053	8.11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574	2,883	12.00
	기준가격 (E=C/D × 1000)	1,097.11	1,059.02	-3.47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3분기 금 가격은 2분기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의 주요 관심사가 고용지표에 쏠린만큼, 7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 및 실업률 지표가 호조를 보여 미국의 고용 개선세가 확인 되면서 금 가격은 장중 1677.9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더불어 변동 코로나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미국 8월 산업생산 지표, 7월 소매판매 지표, 8월 고용지표 등의 부진이 나타나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시적이라고 단언하는 Fed의 입장에 달려 강세 모멘텀을 형성되어 금 가격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후 8월 미 소매판매 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인 점이 이러한 Fed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니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Risk-Off 심리가 확대되고, 금리 인상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8월 잭슨홀 미팅으로 달려 또한 하향안정화를 이루면서 금 가격 상승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월 매파적 FOMC의 내년 금리인상 전망, 델타 변이의 확산에도 꾸준한 경제회복 전망,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강 달러가 지속되고 미국채 수익률이 1.5% 위로 치솟은 점이 금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4분기 금 가격은 다소 긴축적이었던 9월 FOMC 영향으로 급상승한 금리의 고점 부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의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Fed가 11월부터 자산매입축소를 개시하겠다는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을 내보냈지만,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상이 미국채 수익률에 선반영 된 점과 연준 내 매파 성향 인사가 사임을 선언했다는 점이 당분간 연준 내 비둘기파 입장을 강화시켜 미 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병목현상과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델타 변이로 인한 임금 인상과 중국 전력차질 관련 한 생산자물가 증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금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지표가 반등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되어 강 달러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골드펀드	-3.47	-1.91	-8.03	-8.4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9)	(-1.32)	(-0.69)	(-0.63)
비교지수(벤치마크)	-3.28	-0.59	-7.34	-7.77

*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ACWI SelGdMini NtX 10% + Us Global GO GOLD PPMX 10% + Global Agg ex-USDFloatX 32% + LBMA Gold Price PM USD X 38%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골드펀드	-8.40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3)	(-)	(-)	(-)
비교지수(벤치마크)	-7.77	-	-	-

*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ACWI SelGdMini NtX 10% + Us Global GO GOLD PPMX 10% + Global Agg ex-USDFloatX 32% + LBMA Gold Price PM USD X 38%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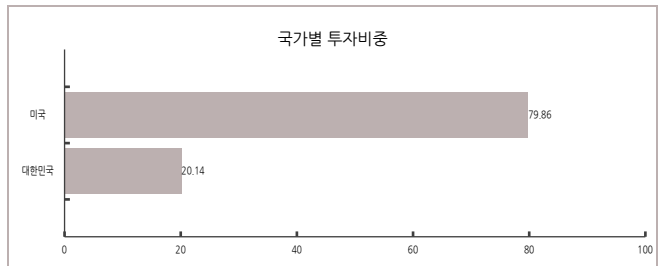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기타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4	0	0	26	-21	0	0	0	0	0	9	18
당기	2	0	0	0	-113	0	0	0	0	0	22	-89

3. 자산현황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미국	79.86		
2	대한민국	20.14		
3				8
4				9
5				10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1.09.30)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1.07.01 ~ 21.09.30)	환헤지로 인한 손익 (21.07.01 ~ 21.09.30)
-	84.9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손실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통화선물

(단위: 계약, 백만원)

종목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미국달러F202110	매도	172	2,038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ISHARES GOLD TRUST	34.17	6	단기상품	증거금교보증권	2.03
2	집합투자증권 VANGUARD TOTAL INTL BOND ETF	28.10	7			
3	단기상품 은대(국민은행)	18.11	8			
4	집합투자증권 ISHARES MSCI GLOBAL GOLD MIN	8.86	9			
5	집합투자증권 US GLB GLD & METAL MNPS ETF	8.73	10			

'골드펀드'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헤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2	81	2,556,282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9	81	2,556,282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8	81	2,556,282	-	-	2119000109
윤유라	대리	29	81	2,556,282	-	-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1	0	0.02	
판매회사	2	0.08	2	0.08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3	0.10	3	0.10	
기타비용	0	0.02	0	0.02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	0.04	1	0.04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1	0.04	1	0.04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902	0.1531	0.6433
당기	0.5183	0.1679	0.6862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